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630호
주소 | 561-812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성가정 1 / 115mm*175mm / 정광신)

†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입당송 시편 2, 7

제1독서 이사 9, 1-6

화답송 시편 95, 1-2, 7, 2, 11-12, 13 (루가 2, 11)

◎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오늘 탄생하셨도다.

제2독서 디다 2, 11-14

복음환호송 루가 2, 10-11

복음 루가 2, 1-14

영성체송 요한 1, 14

† 예수 성탄 대축일 새벽 미사

입당송 이사 9, 1, 5; 루가 1, 33 참조

제1독서 이사 62, 11-12

화답송 시편 96, 1과 6, 11-12

◎ 주님께서서 우리 위에 탄생하셨으니, 오늘 우리 위에 광명이

비치리라.

제2독서 디다 3, 4-7

복음환호송 루가 2, 14

복음 루가 2, 15-20

영성체송 즈가 9, 9 참조

†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입당송 이사 9, 5 참조

제1독서 이사 52, 7-10

화답송 시편 97, 1, 2-3, 3, 4-5, 6 (3, 4)

◎ 땅 끝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모두 우러러보았도다.

제2독서 히브 1, 1-6

복음환호송

복음 요한 1, 1-8

영성체송 시편 97, 3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1.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 같은 분이셨다……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요한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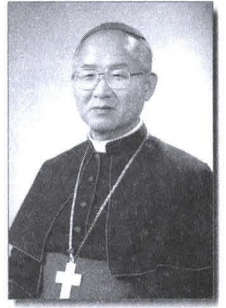
요한복음의 이 표현에 따르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쓰는 보통 말은 물론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본래는 그랬습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놀랍게도 보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서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1요한 1,1).

성탄 때만 되면 마굿간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이 아니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성서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무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루가 2,6-7). 태어나신 첫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오해와 거부를 당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금도 문밖에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요한 묵시록 3,20). 그렇기 때문에, 2천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것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들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안으로 받아모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하게 모시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말씀을 외워서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1-32).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릴 때에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해야 합니다.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예수께서는 간단한 말씀으로 잘 설명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요한 묵시 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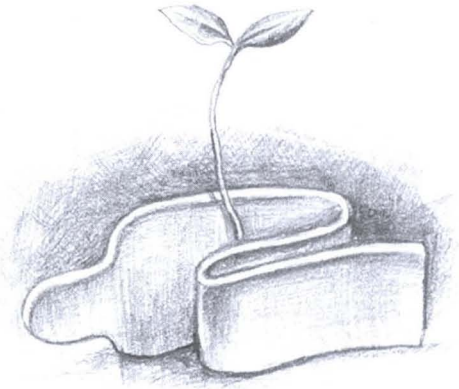
이병호 주교
전주교구장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마태 13,19-23).

2.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 여러 종파까지 포함하면, 이제 우리 나라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서양 대부분의 나라가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복음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그 정당성을 두고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라크 전쟁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주정부가 들어선지 오래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계의 부정부패가 또한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눈에 띄는 현상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미 우리는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 하느님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일에서 뿐 아니라 부부생활, 가정생활, 이웃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도 복음의 정신이 아직 파고 들어가 있지 않은 구석을 여기저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꿈꾸던 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은 좀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삶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세상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가르침을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와 세상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 · 한병기 프란치스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 1, 1-14 참조)

모든 검도인의 자부심과 희망의 공간
최고의 시설을 갖춘 16년 전통과 명성의

세심검도관

국가대표출신, 검도 7단, 18년 대학강의 경임교수
이학박사 김태경(빈첸시오) 직접지도
서신동 본영원 옆
☎(063)224-5455
H·P 011-657-9965

전주MBC FM오노소지정 협찬회원
JTV전주방송 지점 협찬

전주태인꽃시장

전국 꽃배달서비스 전북지부
대표:조일선(요한) / 원장:양경순(데레사)
전주시청 옆 삼성생명 뒤
TEL ☎(063)275-0231(대) / FAX (063)275-9656
H·P 011-679-0231(대표)
011-679-8779(원장)
http://www.ok115flower.com

이 레 칩 대

(제조 · 판매)
칩대:퀵사이즈 210,000부터
돌침대:상급 750,000/권 950,000원
라텍스 매트리스 및 마루판 침대 판매
업소용 가구 주문제작 설치
전시장 : 전주 ☎(063)211-6424
군산 ☎(063)463-9700
익산 ☎(063)836-2676

허리 통증 고생하지 마세요!!

(디스크 좌골 신경통)
신 발명품 디스크엔드 마크 FDA승인
현대 척추교정원 원장 김 중 진(스테파노)
화 · 금 주2회 무료 교정 실시
위치 : 아중리 노동청사 옆 사거리
현대메디칼(주) 전북본부 ☎(063)245-7581~3
원장 상담 ☎080-085-7585

윤 컴퓨터학원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기관
OA · 그래픽 · CAD · 홈페이지
초 · 중 · 고 · 대학 · 주부 · 직장인반
강선구(프란치스코) · 최미경(프란체스카)
영등하이마트사거리 오피스존 3층
☎(063)836-3336

전기요금 확~ 내렸습니다.

드림파워를 설치하시면 전기요금이 20%절약
가정용 · 상가 · 업소 · 산업 · 빌딩등 모든 건물에 적용
설치시 투자비 회수기간 2년 이내 원금회수
최학민(바오로) · 송계순(소화데레사)
드림파워텍 ☎(063)241-8151~2
http://www.dreampowertech.com

서울작은예수회

1. 단식피정의집 : 1년 365일 진행합니다.
2. 송구영신 대피정
강사진 : 김진석 신부님의 다섯분
기간 : 2003년 12월 30일~2004년 1월 1일
문의 : ☎(031)584-5997
HP 011-9001-8715
011-359-6947

안중욱 안과

※라식수술(시력교정 수술)
※백내장 수술
안중욱 · 박근성(올리안나)
익산시 중앙동
(063)858-0342
080-657-9000